

마켓 BEAT



멀리서 보아야 아름다울 슈퍼워크

Market | 황산해 | sh.hwang@ls-sec.co.kr
RA | 성현영 | hyseong@ls-sec.co.kr

한국 증시 Review: AI 센티의 회복과 뒷배 (KOSPI +6.91% KOSDAQ +5.91%)

유가와 금리의 압박에도 GPT-6 아스트라의 폭발적 수요가 AGI 진입과 AI CAPEX 경쟁 가속화 기대감 자극. AI 밸류체인과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 삼성전자(+7.6%), SK하이닉스(+16.1%)가 기타법인발 수급이 받쳐주는 가운데 강세 보였으며 주성엔지니어링(+31.5%), 원익PS(+13.1%) 등 소부장 업종을 비롯 전력기기, 건설 섹터까지 AI 센티회복에 반응. 반면 그 외 수출주(자동차, 화장품, 식품 등)는 원화 강세 기조로 인한 이익 감소 우려로 하방압력 불가피

수급 연속성의 부재와 매물대의 부담으로 7,000pt선 강하게 상향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기타법인은 5거래일 연속 일간 1.5조원 이상의 순매수세 지속. 반면 개인의 경우 9/3 이후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으며 외인은 AI발 호재에 반응하며 매수세 지속하는 듯했으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9/10 2.4조원을 순매도하며 상단에 대한 저항 형성

한국 증시 Preview: 멀리서 보아야 아름다울 슈퍼워크 (주간 밴드: KOSPI 6,500~7,300pt)

매크로 부담 재조명되며 증시 하방 압력 강화 불가피. 유가 및 금리 환경이 불확실성의 성격에서 상승 방향으로 구도를 형성. 반도체의 경우 퀄리티와 보장된 성장성이 불확실성은 방어할 수 있으나 방향성 잡힌 유동성 긴축과 비용 압박 시그널에는 취약하다는 점 고려. 구조적 수혜 받는 금융, 에너지로 방어적 대응 필요하며 반산 또한 지정화리스크 기반 반등세 지속 예상. 반면 AI 관련업종의 경우 전주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부담 체감할 가능성

KOSPI의 장단기 이평선이 수렴한 상태로 본격적인 방향성 탐색 구간 진입. 시장이 r과 g의 균형을 어떻게 재설정 및 평가하는지가 확인되는 기간으로 당장의 비중확대보다 발산의 방향성과 모멘텀 형성 여부 확인 이후 진입 전략 유효할 것으로 판단. FOMC를 비롯 BOJ, BOE 등 차주 예정된 회의들에서 매파적 행보가 예상되고 있으며 앞선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도 25bp인상을 결정. AI 사이클이 본격적인 레버리지 국면에 진입한 반면, 2분기부터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은 위축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 해소하고 넘어갈 필요

그림1 코스피 주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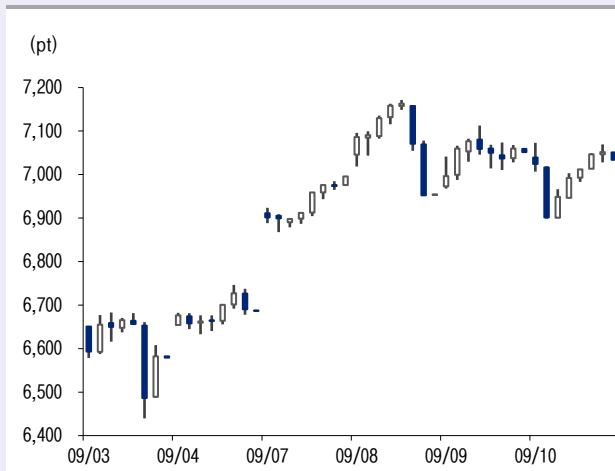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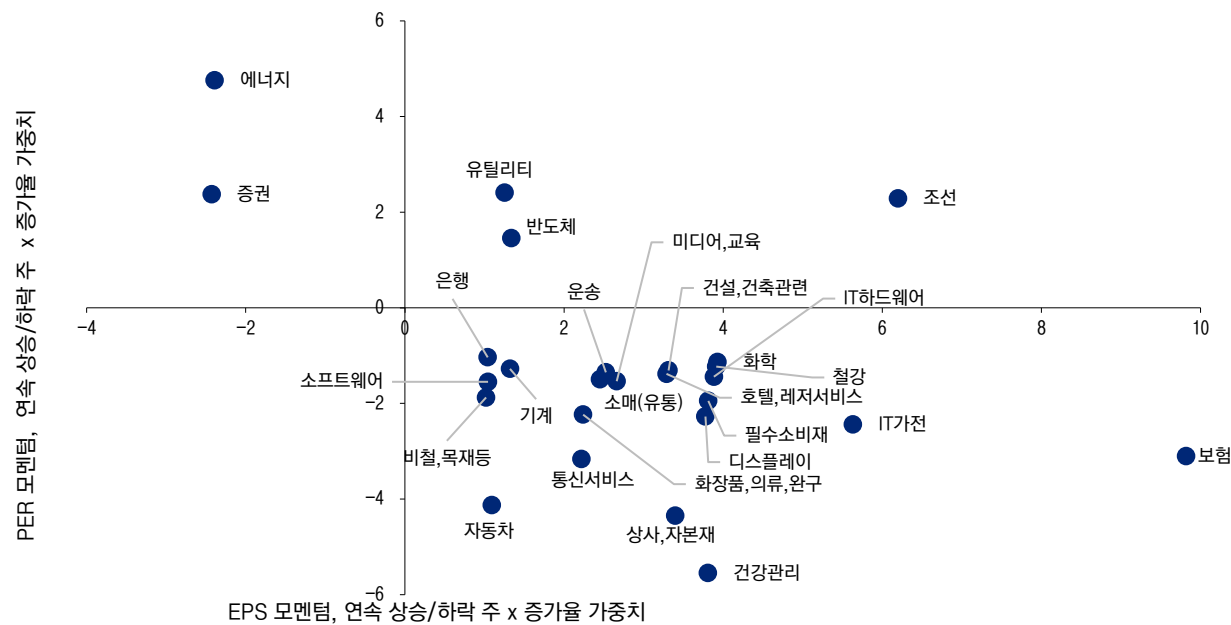


그림2 차주(9/14~9/18) 주요 일정

일자	주요 이벤트	일자	주요 이벤트
9/15	[한국] 8월 수출입물가지수	9/17	[미국] 9월 필리 연은 제조업지수
9/15	[미국] 20년물 국채입찰	9/17	[유로존] 8월 CPI
9/15	[중국] 8월 산업생산	9/18	[일본] BOJ 금리결정
9/16	[미국] FOMC 금리결정	9/18	[한국] 8월 PPI
9/16	[미국] 8월 수출입물가지수	9/18	[일본] 8월 CPI
9/16	[미국] 8월 소매판매	9/18	[미국] 8월 산업생산
9/17	[영국] BOE 금리결정	9/18	[미국] 8월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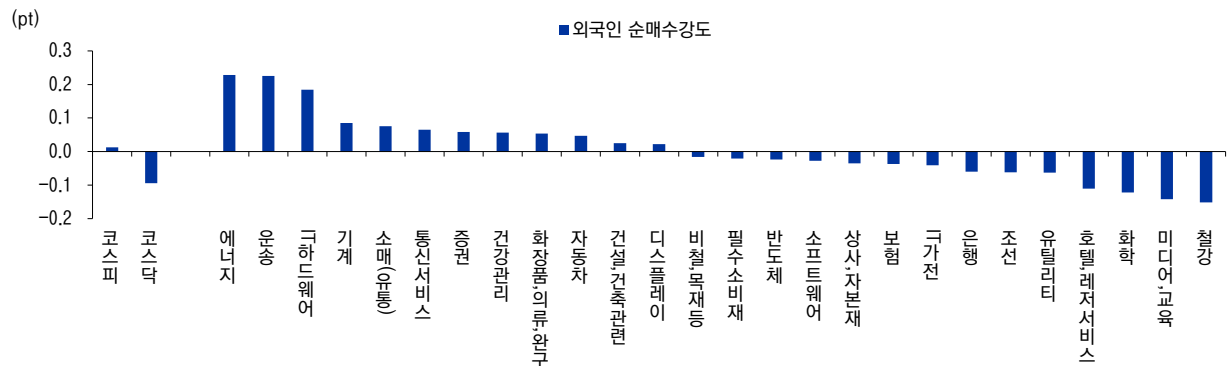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한국 섹터별 PER, EPS 주간 변화 모멘텀 산포도



자료: FnGuide,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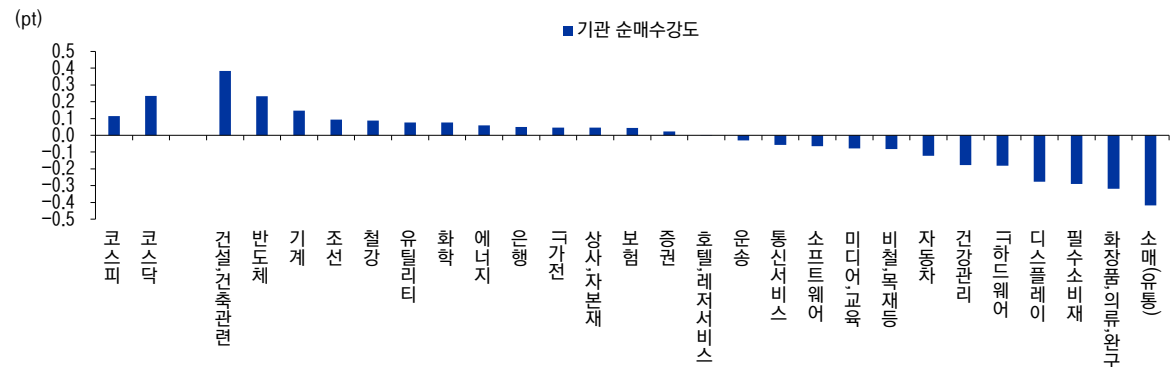
그림4 WI26 섹터별 외국인 순매수 강도



주: 시가총액 대비 5일 누적 순매수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WI26 섹터별 기관 순매수 강도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주요 Issue Preview: FOMC, 중동전쟁, BOJ, 소비

1. 미국 FOMC(9/15~16)

7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는 3.50~3.75%로 동결되었으나 인상 소수의견 3인(베스 해맥, 닐 카시카리, 로리 로건) 존재. 이후 발표된 지표는 인상 논거를 강화하는 방향. 8월 비농업고용은 +16.2만명으로 컨센서스(+5.3만명)를 큰 폭 상회했고 실업률은 4.1% 유지. 잭슨홀에서의 케빈 워시 의장 발언 또한 시장에서 인상 용인으로 해석. 중동사태 악화로 WTI를 \$100이상으로 끌어올리며 CME FedWatch상 25bp 인상 확률은 70%대까지 상승

다만 고용 내부의 부실한 퀄리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유가의 물가 고착화 흐름, 단기적 대응을 원하지 않는 연준의 전략 등을 고려하면 아직 동결 가능성 또한 상존. 더해 이미 시장금리가 상당 부분 긴축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FOMC 결과에 따른 글로벌 증시의 반응 강도 높을 것으로 예상. 직전주까지 동결과 인상 가능성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시장에 프라이싱되지 못한 모습

2. 중동 및 유가 상황

미-이란 간의 무력 충돌 격화와 유조선 격침 피해로 지정학 리스크 진정 가능성 급격히 후퇴. Polymarket 기준 올해 말까지 호르무즈해협 정상화 가능성은 8월초 50%, 9월초 30%에서 9/10 기준 16%까지 급락.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이란 전쟁이 종료될 것이라 발언한 점도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감 후퇴. 더해 사우디-후티 반군 간의 충돌도 현재 진행형. 리스크에 따른 유가 반응도 올초 대비 민감할 가능성. 중국 원유 수입량이 7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수요 강화되었으며 원유 재고 환경, 각국 정부의 버퍼와 재정적 여력, 러-우 전쟁에서의 지속적 정유 인프라 타격 등이 유가 상방 자극 요인

3. BOJ와 BOE 통화정책 회의(9/17~18)

BOE의 매파적 동결과 BOJ의 25bp 추가 인상을 점치고 있는 시장. 일본의 경우 임금 상승, 공급압박 등 물가 상방 리스크가 지속. 더해 미-일 엔화 안정 시도 이후에도 이어졌던 엔화 약세 흐름이 BOJ의 금리 인상 기대감과 경기 모멘텀을 기반으로 강세 전환했다는 점이 금번 회의에서 인상은 불가피함을 시사. 다만 시장 기대감을 넘어서는 매파적 행보 보인다면 최근 산발적인 수급 변동성 유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엔캐리 연관 수급 재발할 가능성

4. 경기지표: 8월 미국 소매판매(9/16), 8월 일본 CPI(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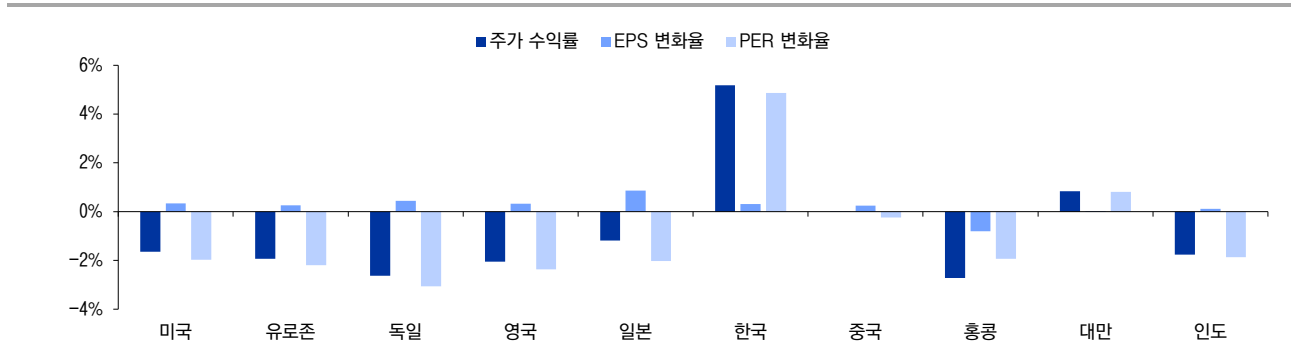
7월 소매판매는 -0.6%MoM으로 1년여 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시장에 충격. 8월 지표에서 확인할 것은 헤드라인의 반등 여부가 아니라 명목과 실질의 괴리.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큰 폭 상승한 만큼 주유소 매출이 명목 소매판매를 상방으로 견인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는 소비 여력의 확대가 아닌 비재량 지출의 증가. 컨트롤 그룹의 방향성이 실제 소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진할 경우 현 공급 압박 고려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내러티브 강화될 가능성

5. 모건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9/14~16)

글로벌 빅파마 및 바이오텍이 대거 참가하는 컨퍼런스로 비만, 종양 등의 영역에 대한 조명과 M&A 및 라이선스 딜 헤드라인 등장이 빈번하게 발생. 빅파마와 연관된 국내 개별 바이오주들의 테마성 반응 등장 재료로 기대. 더해 주요 의제로 AI 활용 신약 개발, AI 활용 의료 비용 솔루션 등이 포진되어 AI 사이클 단에서도 수익화에 대한 힌트 제공 가능성

글로벌 및 미국 증시 Weekly View

그림6 글로벌 주요국 증시 주가, EPS, PER 주간 변화율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및 미국 증시 Review (S&P500 -2.01%)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 중심의 랠리 보인 것 대비 미국 및 선진국 증시는 대체로 부진한 모습. 주목할 부분은 하락의 구성으로, 나스닥 대비 다우와 러셀2000의 낙폭이 컸다는 점. AI 사이클이 훼손된 것이 아닌 금리가 시장을 눌렀음을 의미하며, 불확실성 국면에서 뚜렷한 성장 스토리와 이익 증명한 AI 생태계로 쏠림 강화. 실제로 GPT-6 아스트라 공개 이후 반도체와 광통신 업종은 상대 강세를 유지. 다만 주 후반으로 향할수록 금리와 유가 방향성이 뚜렷해짐에 따라 기술주 역시 되돌림 압력에 노출. 쏠림의 근거였던 불확실성이 금리와 유가 상승세로 치환되며 성장 프리미엄이 할인율 부담으로 대체. 결국 주간 전체로는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면치 못했고 지수를 지지하는 측은 에너지와 일부 메가캡으로 좁혀지는 구도. WTI가 7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돌파. 미 국채 10년물은 4.9%, 30년물은 5.3%대를 넘어서며 나란히 52주 신고가 경신

글로벌 및 미국 증시 Preview, 미국의 강점이 드러날 시기

S&P500 주간 밴드: 7,400pt~7,800pt

매파적 통화정책과 유가의 압박에도 유럽, 아시아 대비 방어적일 미 증시. 기술주 변동성과 하이퍼스케일러의 레버리지 부담 압박은 불가피하나 에너지와 금융 섹터, 방어적 업종(통신, 음식료)이 증시 하단 지지 가능. 더해 AI와 에너지 인프라 건설 본격화에 따른 ISM 제조업 PMI, 고용 등 매크로 지표 호조를 이미 확인한 단계이며, 에너지 순수출국 지위까지 고려하면 현 리스크 국면에서도 타국 대비 경기 펀더멘털 측면의 방어 가능

다만 이는 덜 빠진다는 상대 개념으로 상방이 열렸다는 의미는 아님. 시장의 폭, 모멘텀, 강도,センチ멘트가 한달 가량 위축세를 지속하며 지수를 떠받치는 축이 좁아지는 구도. 상방을 열기 위해서는 유동성단의 힌트(통화정책 방향성, Clarity 법안, 은행권 규제 완화 등)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며 차주 대형 매크로 이벤트를 통해 일부 확인 가능할 것

9/14~18 미국 증시 주요 실적 발표

09/14 (월) 이벤트: UBS Taiwan Summit 2026 (9/14~16), Barclays Global Financials

Conference (9/14~16), Goldman Sachs 33rd Annual Global Retailing Conference(9/14~15)

09/15 (화) 트립닷컴(TCOM), 이벤트: MorganStanley Global Healthcare Conference,

PiperSandler Growth Frontiers Conference

09/16 (수) 레나(LEN), 이벤트: Deutsche Bank Healthcare Summit (9/16~17)

09/17 (목) 카니발(CCL)

09/18 (금) 이벤트: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황산해, 성현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